

가을,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 토요 무료 상영을

'피란만장 Art World' 주제로 '에이미' '비비안 마이어를 찾아서' '라이프' 상영

전주영화제작소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은 '피란만장 Art World'이라는 주제로 10월 토요 무료상영전을 연다. 이번 달에는 각 예술 분야의 흥미진진한 이야기 또는 현장을 담은 영화 5편을 선정하여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무료로 상영한다.

영화 <에이미>는 21세에 데뷔해 27세에 세상을 떠났지만 단 2장의 앨범으로 21세기 천재 뮤지션에 등극한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화려한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를 그린 다큐멘터리이다.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삶과 음악을 재조명하며, 우리가 몰랐던 진솔한 그녀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녀를 그리워하는 관객들에게 울림을 전한 작품이다.

영화 <비비안 마이어를 찾아서>는 2007년 우연히 발견된 정체불명의 필름 15만장, 누구에게도 공개된 적 없던 주옥같은 사진을 낚진 미스터리한 인물 '비비안 마이어'의 정체체를 찾아 가는 과정을 다룬 작품이다. 비비안 마이어의 재능이 빛나는 사진들과 그녀

를 세상에 소개한 존 발루프 감독의 연출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뜨거운 호평을 받았다. 제15회 전주국제영화제 시네마페스트 부문 상영작이며, 2015 아카데미 시상식 최우수 다큐멘터리 부문 노미네이트 등 화제를 모았다.

영화 <라이프>는 불멸의 스타 이전의 무명 배우 제임스 딘과 신인 사진작가 데니스 스톡의 운명적인 만남부터 전설로 남은 한 장의 사진이 탄생하기까지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할리우드의 가장 뜨거운 두 배우 데인드라와 로버트 패틴슨의 출연으로 화제를 모았으며, 전설적인 사진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관객들의 궁금증을 자극하는 작품이다.

60년 전봉을 이어가고 있는 프랑스 대표 아트섹슈얼쇼 '크레이지호스'를 영화화 한 <크레이지 호스>는 미녀 댄서들의 쇼 장면과 금남의 구역인 무대 뒤 분장실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은 다큐멘터리 작품이다. 리허설부터 쇼까지 '크레이지호스' 결들의 생생한 준

비과정을 담았다. 다큐멘터리 거장 프레드릭 와이즈먼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 기대를 모은 작품이다.

9월 개봉작 <다가오는 것들>의 미야한센 러브 감독의 영화 <에덴 : 로스트 인 뮤직>은 프랑스에서 EDM이 폭발적 인기를 끈 1990년대에서 시작해 현재까지 10대였던 DJ 풀이 경험하는 삶의 굴곡을 다룬 작품이다. 20년간 DJ로 활동해 온 감독의 친오빠 스펠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 졌다. 토론토영화제, 뉴욕영화제, 샌댄스영화제 등에서 호평 받았으며 산세바스티안영화제 황금조개상에 노미네이트되며 작품성을 인정받은 작품이다.

각 회차 1시간 전부터 티켓박스에서 선착순(1인 1매)으로 좌석 지정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홈페이지 <http://theque.jiff.or.kr> 문의 063-231-3377.

/정해은 기자



영화 '라이프' 포스터로 불멸의 스타 이전의 무명 배우 제임스 딘과 신인 사진작가 데니스 스톡의 운명적인 만남부터 전설로 남은 한 장의 사진이 탄생하기까지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전설적인 사진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관객들의 궁금증을 자극한다.

정읍예술회관서 정순왕후 주제로 '하늘연인' 공연

지난 5월(28일)을 시작으로 공연을 이어온 2016 한옥자원 활용 아간상설 공연인 정순왕후 서사무곡인 '하늘연인'이 10월 2일 오후 3시 정읍예술회관에서 마지막으로 무료 공연된다.

시는 "그간 신의면에 소재한 고택문화체험관(주관 사단법인 한옥마을사람들)에서 공연해온 '하늘 연인'의 마지막 공연을 시민들을 모시고 정읍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갖는다"고 밝혔다.

공연장인 고택문화체험관이 시내와 다소 먼 거리에 위치해 있어 관람하지 못한 시민들에게 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하늘연인'은 고택문화체험관에서 매주 금요일 또는 토요일에 공연돼왔는데, 현재까지 모두 2천132명이 관람했다. 특히 지난 7월 28일에는 경기도 남양주에서 초청공연도 가져 320여명이 관람하는 등 큰 인기를 모은 바 있다.

'하늘연인'은 정읍 칠보에서 출생한 조선 제6대 왕인 단종(1441년~1457년)의 정순왕후(1440년~1521년) 송씨의 삶을 담은 서사무곡이다. 단종 사후에 관비로 강등돼 옥중에 죽음을 맞이하며 삶을 연명하는, 죽음보다 더 깊은 슬픔 가운데서도 평생을 남편의 명복을 빌며 충절과 절개를 지켰다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작품은 18세부터 64년 간 단종을 그리며 한 맺힌 인고의 세월을 보내다가 생을 마감하는 82세가 되는 해 단종의 기일을 맞아 마지막 제사를 지내는 정순왕후의 회상으로 구성돼 있다.

공연 관련 문의는 시청 문화예술과(☎063.539-5175) 또는 (사)한옥마을사람들(☎063.539-1248)로 하면 된다.

/정읍=김태환기자



이번 전시는 초대작가와 의상 관련 교수 30인이 참여한다.

원주 대승한지마을, 한지주제로

의상 패션쇼·초대전 개최나서

고려한지 천년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 복원된 원주 대승한지마을에서는 '한지 색으로 스며들다'라는 주제로 2016년 제7회 대한민국 한지의상 패션쇼 & 초대전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오는 10월 27일까지 진행되며, 국내 한류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초대작가와 의상 관련 교수 30인이 참여해 창의적 디자인개발과 한국적 요소를 융합한 한국적 아름다움과 한류문화를 선보인다.

특히 이번 전시는 국내·외 발표되지 않은 창작품과 한지 비율을 70% 이상 사용한 새롭고 다양한 한지 전시를 감상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을 위해 △전통한지 초지체험, △한지 초지액자 만들기, △한지 고무신 만들기, △한지 손거울 만들기, △육각 연필꽂이 만들기 및 △한지접서 만들기 등의 다채로운 한지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원주 대승한지마을 이명기 관장은 "한지는 전통성과 예술성의 맥을 통해 미적인 문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는 '아이템이다'며 "이번 전시로 세계를 향해 국내디자인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국적 아름다움을 선보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시 관람료는 무료이며, 매주 월요일 휴관한다. /원주=이종복 기자



공연 첫날인 1일에는 해금 연주자 윤세비의 해금, 가을을 노래하다 가 펼쳐진다. 이어 둘째주에는 전통춤 공연 등 프로그램이 계속 이어진다

국립민속국악원, 젊은 국악인들 무대 선포

내달 토요일마다 예원당과 예음헌에서 '2016 젊은 풍류' 공연

국립민속국악원은 오는 10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예원당과 예음헌에서 젊은 국악인들이 펼치는 무대 '2016 젊은 풍류' 공연을 선보인다.

신진예술가의 무대 2016 젊은풍류는 35세 이하의 재능 있는 국악인들을 대상으로 올해 7월 기악·성악·연희·무용 등 전통공연예술의 다양한 장르의 발표자를 모집했으며 창의성과 독창성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총 5팀을 선정했다.

공연 첫날인 1일에는 해금 연주자 윤세비의 '해금, 가을을 노래하다'가 펼쳐진다. 인간의 삶을 연주한 곡 '사생화', 현대적인 느낌으로 새로 편곡한 '민요연곡' 등 해금, 가야금, 생황, 피아노의 다양한 구성을 통해 해금의 매력과 가을의 풍성함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어 둘째 주에는 한국무용의 저변확대

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다음댄스컴퍼니의 '젊은 전통 푸른 춤 푸른 춤' 공연이 열린다. 전통 춤에 담긴 은근한 멋과 흥을 젊은 감각으로 새롭게 재해석한 '허튼 살풀이춤', '태평무', '소고춤' 등 총 7가지의 다채로운 춤이 무대에 오른다. 15일에는 춘향누구대전, 대한민국 대학국악제, 전국 관소리경연대회 등 국내 주요 국악경연대회에서 수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은 소리꾼 최보라가 '보성소리 수궁가 완창을 들려준다. 22일에는 전통 참법을 바탕으로 현대음악을 접목한 한국음악그룹 월천의 '풍류월천'이 펼쳐진다. 문의 063-620-2325. /정해은 기자

'사용자참여형' 국어사전 출시

국민 누구나 정보를 더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사용자 참여형' 국어사전이 나온다.

국립국어원은 28일 국민의 참여로 한국어 지식을 집대성하고 사회·언어 변화를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진화하는 사전'을 표방한 새 국어사전 '우리말샘'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다음 달 5일 정식 개통하는 '우리말샘'은 '표준국어대사전' 50만 어휘에 새로 구축한 일상어(7만5000개)·지역어(9만개)·전문용어(35만개) 등 50만 어휘를 더해 모두 100만 어휘가 수록된 사전이다. 예를 들어 일상어로는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없는 '꽃청춘' '힐링하다' '그루밍하다' 등의 단어가 포함됐다.

또 '우리말샘'에는 뜻풀이·예문 등 기본 정보 외에도 어휘의 역사·규범 정보, 삽화·사진·동영상 정보, 어휘 지도 등 다양한 한국어 정보와 지식·문화 정보도 담겼다.

'우리말샘'은 일반 참여자와 사전 전문가의 협업으로 끊임없이 더해지는 위키(Wiki)식(式) 사전이다.

일반 참여자는 '우리말샘' 웹사이트 가입 후 사전 편찬에 참여할 수 있다. 사용자가 첨삭한 정보는 표현·표기 감수를 거쳐 사전에 오를 수 있고(참여자가 제안 후보), 이 정보는 해당 분야 전문가 감수 후에는 '전문가 감수 정보'로 표기된다. 또 이 결과는 다른 사용자에 의해 재수정될 수 있다. 포함·자모·초성·정보별 검색 등 다양한 검색 기능도 갖췄다. /뉴시스

피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lab.com/>

<2016년 9월 29일>

▷쥐띠
46년생: 칸디안이 좋지 못하니 무리는 금물.
60년생: 정신적으로 편지 않은 운이다.
72년생: 인덕이 따르니 사람으로 인해 일이 성사도졌다.
84년생: 금전적인 이득은 적으나 사람은 얻는다.

▷소띠
49년생: 다른 사람에게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운이다.
61년생: 진실로 일한다면 알아주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73년생: 금전적으로는 좋은 기운이나 구실이 따르니 주의.
85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계획을 세워 추진하라.

▷호랑이띠
50년생: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운이다.
62년생: 손아래 사람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라.
74년생: 매사에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하라.
86년생: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일구어 나가야 할 것이다.

▷토끼띠
51년생: 동분서주하는 운이나 결과는 미약하나 욕심은 버려라.
63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시비를 거는 사람이 나타난다.
75년생: 능력 있는 사람의 지혜를 빌려라.
87년생: 이동이나 새로운 변화를 갖는 것이 좋은 운이다.

▷용띠
52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진행하라.
64년생: 다른 것을 하기 보다는 기존의 해왔던 일에 집중.
76년생: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각하고 표현하고 행동하라.
88년생: 욕심을 부리지만 않는다면 작은 일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

▷뱀띠
53년생: 서두르면 일을 그르칠 수 있으니 때를 기다려라.
65년생: 지금은 뒤로 물러서 준비할 때이다.
77년생: 사고수와 실물수가 따르니 유행은 삼가는 것이 좋겠다.
89년생: 생리의 전원이 오히려 해가 되니 기존의 것을 고수하라.

▷말띠
54년생: 중간에 피곤한 상황이 발생하니 심신이 고갈된 운이다.
66년생: 어려운 일에 닥치면 손윗사람의 도움을 받으려 한다.
78년생: 지나친 욕심으로 화가 미치니 작은 것이 만족하라.
90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운이다.

▷양띠
55년생: 타인으로부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다.
67년생: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니 곤란한 상황을 잘 보면 된다.
79년생: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며 큰 그림을 그려라.
91년생: 자신이 감당하고 책임질 수 있는 일만 진행하라.개띠

▷원숭이띠
55년생: 혼자만의 생각으로 움직이면 민망한 상황이 발생한다.
69년생: 하고자 하는 일의 시작보다는 끝마무리를 잘해야
80년생: 타인과의 불화가 예상되니 모임은 미루라.
92년생: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니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

▷닭띠
57년생: 좋은 운이 들어오니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결실.
69년생: 결과적으로는 좋으나 과정이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라.
81년생: 남성은 이성을 주의해야 하는 운이다.
93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구실이 따르니 말과 행동에 주의.

▷개띠
49년생: 변동수를 가지면 흥분일이 발생한다.
61년생: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보다 이성적으로 대처하라.
73년생: 건강에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 기관지 계통을 주의하라.
85년생: 작은 소망은 이를 수 있는 운이다. 긍정적으로 전진하라.

▷돼지띠
47년생: 계획과 같은 문서를 주고받는 일도 좋은 운이다.
59년생: 타인이 호의적으로 다가오는 운이다.
71년생: 소울했던 사람에게 신경 써야 하는 운.
83년생: 금전적인 안 좋은지니 계획적인 지출과 대비하라.